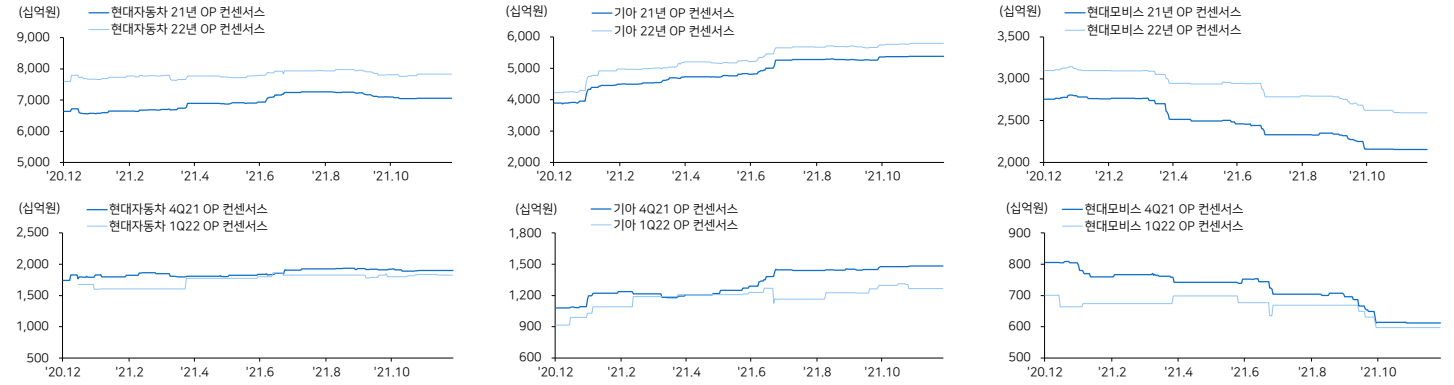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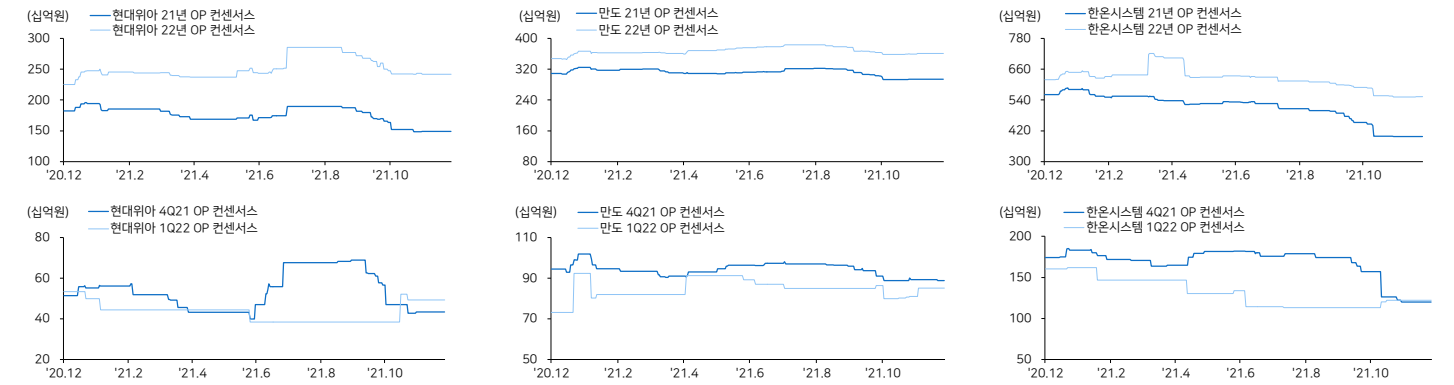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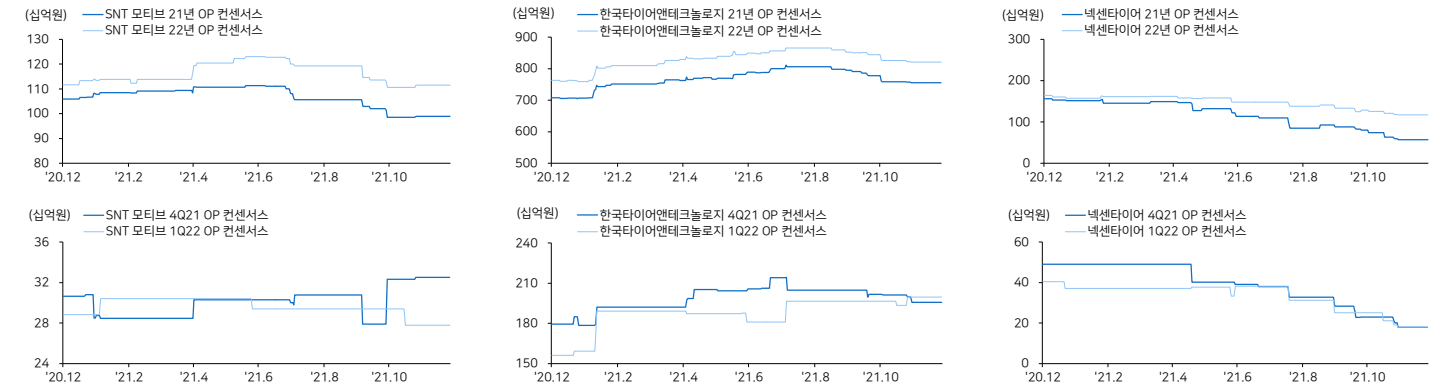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작년 미국 시장 판매 19% 증가...총 73만8천81대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이 73만8천81대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9% 늘어남. 기아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70만1천416대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연 판매량이 70만대를 돌파함.
<https://bit.ly/3e5wBVq>

한라그룹 자율주행기업, 'BMW 낙점' 서울로보틱스와 협력품 공유 (THE GURU)

HL클레무브는 'CES 2022'에 조성된 서울로보틱스 부스에서 라이다·레이다 파트너십의 성과를 공유. 양사는 HL클레무브의 자체 라이다·레이다 기술에 서울로보틱스의 인공지능 인식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
<https://bit.ly/3p5Duu3>

Chinese EV startups turn to Nvidia in the race to catch Tesla (Reuters)

Nvidia 부사장 Ali Kanani는 CES 2022에서 Polestar, Xpeng, NIO, IM Motors, Li를 포함하여 신차의 컴퓨팅 일부로 Nvidia의 DRIVE 기술을 사용할 여러 중국 전기차(EV) 제조업체를 언급함. 향후 6년간 자동차 관련 매출이 80억달러에 달할 예정.
<https://reut.rs/3pWm07e>

Lucid plans to enter European markets this year (Reuters)

루시드모터스는 유럽 시장 진출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함. 현재 애리조나에 위치한 공장의 생산능력은 '22년 20,000대로 예상되며, 루시드는 '22년 중동과 유럽, '23년 중국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https://reut.rs/34gypFz>

자급 사도 올해 안에 못받는 아이오닉5·EV6...작년 판매도 목표 미달 (머니투데이)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모터 등 구동계 관련 부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 때문에 지난해 국내 판매량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두 차종 모두 현재 주문 시 인도까지 소요 시간은 1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4rIEIB>

니켈 가격 10년만에 최고치...전기차·전자제품 배터리급 인산염 전망 (조선비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이 1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니켈 재고량도 빠르게 줄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원자재 수급난과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을지 우려. 올해의 배터리 가격 인상폭이 예년들 상회할 전망.
<https://bit.ly/3HAQJqR>

Mobileye, Zeekr aim for self-driving car in China in 2024 (Reuters)

인텔 모빌아이는 Geely 자동차의 브랜드 Zeekr와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를 중국에서 '24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두 회사는 EyeQ5 칩을 사용한 레벨4자율주행 기술과 모빌아이의 맵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
<https://reut.rs/3HErgNB>

Ford doubles Lightning production again to 150,000 units per year by 2023 (electrek)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사전 제조의 최종 단계에 진입하여,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함. 새로운 타임라인은 '22년 라이트닝 15,000대, '23년 55,000대, '24년 80,000대로 예상됨. 그럼에도 여전히 수요초과 상황으로 전망.
<https://bit.ly/3qNH9Yn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